

장애를 극복한 사람들

스티븐 윌리엄 호킹(Stephen William Hawking, 1942~)

2009 년까지 케임브리지 대학의 루카스 수학 석좌 교수로 재직한 영국의 이론물리학자이다. 스물한 살 때부터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을 앓아 현재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다. 그는 (특히 블랙홀이 있는 상황에서의) 우주론과 양자 중력의 연구에 크게 기여했으며, 자신의 이론 및 일반적인 우주론을 다룬 여러 대중 과학서를 저술했다. 그 중 시간의 역사는 런던 선데이 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최고기록인 237 주 동안 실렸다. 그의 중요한 과학적 업적으로는 로저 펜로즈와 함께 일반상대론적 특이점에 대한 여러 정리를 증명한 것과 함께, 블랙홀이 열복사를 방출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 있다.

헬렌 애덤스 켈러(Helen Adams Keller, 1880~1968)

미국의 작가, 정치 활동가 및 교육자이다. 그녀는 인문계 학사를 받은 최초의 시각·청각 중복장애인이다. 헬렌 켈러의 장애로 인해 가지고 있던 언어적 문제를 앤 설리번 선생과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한 유년시절을 다룬 영화 《미라클 워커》로 인해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. 여성의 선거권과 참정권, 비참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투쟁함으로써 자본주의를 극복하고자 한 사회주의 운동가이기도 하였다.

장 크레티앙(Joseph Jacques Jean Chretien, 1934 년~)

캐나다의 제 20 대 총리. 왼쪽 안면 근육마비로 한쪽 귀가 멀고 발음이 불분명한 선천성 언어장애인으로, 신체적 멍에를 딛고 캐나다 선거사상 가장 빛나는 승리를 쟁취한 주인공이 되었다. 그가 선거유세를 다닐 때의 일이다. "여러분, 저는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진 언어장애 때문에 제 생각과 의지를 전부 전하지 못할까 봐 고통스럽습니다. 인내심을 가지고 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. 저의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저의 생각과 의지를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." 그 때 반대파의 누군가가 소리쳤다. "하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에게 언어장애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점입니다." 그러자 크레티앙은 어눌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. "나는 말을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."

스티블랜드 하더웨이 모리스(Stevland Hardaway Morris, 1950~)스티비 원더(Stevie Wonder)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흑인 팝 음악의 살아있는 신화. 리듬 앤 블루스, 소울 등 미국

흑인들이 창출해 낸 음악 장르를 꽃피운 선천성 시각장애인 음악가로서,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의 독창적인 작품들은 발표할 때마다 그래미상을 석권했으며 펑크, 소울, 프로그레시브 음악과 재즈로도 편곡되는 등 불후의 명곡으로 남아 있다.